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82.52	↑ 코스닥	844.72
	(+46.00)		(+4.74)
↓ 금리 (미국 9년)	3.440	↓ 환율 (원-달러)	1376.10
	(-0.012)		(-8.40)

metro® 경제

전환기 韓경제
혁신에서 길을 찾자
건강한 사회 '개혁과제' 03



“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가능성… 시추계획 승인”

尹대통령 취임 첫 국정브리핑
엑티오 심층분석·전문가 검증 천연가스 29년, 석유 4년 사용량 연말부터 탐사, 내년 상반기 결과 확인 후 2035년 상업적 개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이 가치는 현 가치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한다고 한다. <관련기사 2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계획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석유 가스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며 “그 결과가 1990년대 후반에 4500만배럴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 생산을 마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엑티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면서 “최근에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에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개발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사

준비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이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취재진 앞에 선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및 매장 추정량에 대해 “최대 140억배럴까지도 가능성 있다고 본다. 잠재가능성만 보면 막대한 분량”이라며 “추정하기로는 4분의 1정도가 석유이고, 4분의 3은 가스로 추정된다. 석유는 4년 분량, 가스는 29~30년 가까이 사용할 양”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향후 탐사시추 통해 정확한 규모와 위치를 정확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올 12월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될 것으로 보고,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실제 매장량이 확인된 후 상업적인 시추 준비를 하게 되면

2027~2028년쯤 공사가 시작돼 상업적 개발은 2035년쯤에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과다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대 매장가능성 140억 배럴은 현 가치로는 삼성전자 총 시가총액의 5배”라며 “매장량을 확인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다.

탐사에 투입되는 비용과 관련해서 안 장관은 “4500만 배럴 분량의 가스가 나오는 동해가스전 개발 비용이 총 1조 2000억원 정도 들었다”면서 “탐사 비용 자체를 말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이나 주요 현안 등이 있을 때는 국정브리핑 형식으로 대국민 보고를 할 방침이라고 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고물가→소비 위축 경기둔화 우려 증폭

美, 개인지출 감소… 韓도 내수 하향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까지 치솟을 때에도 끄떡없던 미국 소비자가 지갑문을 닫고 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금리까지 지속되자 이를 체감해 지출을 줄이고 있다. 물가 흐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가 빠르게 둔화할 경우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 경기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개인소비 지출(PCE)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개인소득은 한달 전과 비교해 0.3%, 개인지출은 같은 기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개인소득이 0.5%, 개인지출이 0.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개인소득과 개인지출 모두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물가가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경우 경기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가 빠른 속도로 지갑을 닫을 경우 기업 실적 감소해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소비 감소가 미국의 증시와 경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다. 한국은행이 올 초 발표한 ‘물가안정기로의 전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안정기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마지막 단계에서 전환한 경우였다.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없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고물가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에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상승하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했지만, 4월부터 내수가 하향곡선을 탔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HSBC는 “가계의 이자지급액이 2021년 총소득의 약 4.4%에서 2023년 7.3%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는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지속된다면 억눌린 소비여력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도 여전히 물가가 높아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에 2.9%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목표치(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현대차그룹, 친환경차 생산량 확대… 글로벌 공략 ‘액셀’

1분기 EV·HEV 글로벌 판매 ‘톱5’
울산 3공장 ‘투싼 HEV’ 추가 생산
美 조지아주 ‘HMGMA’ 조기 완공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생산량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불어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에도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출시 계획을 연기하는 것과 달리 당초 계획한 대로 전기차 신공장 건설과

생산라인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1분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로 글로벌 판매 톱 5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의 경우 전 세계 시장에 10만 4000여대를 판매하며 중국 전기차 브랜드를 제외할 경우 테슬라, 폭스바겐, 스텔란티스에 이어 4위에, 하이브리드차는 17만 6000여대를 판매하며 토요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스즈키, 혼다에 이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생산량 확대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방침

이다.

우선 현대차는 북미 시장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을 확대한다. 현대차는 다음달부터 울산 1~5공장 중 3공장에서 투싼 하이브리드를 생산할 예정이다. 그동안 투싼 하이브리드는 5공장에서 생산했지만 공급량 확대를 위해 3공장에 투입해 연말까지 1만여대를 추가로 생산한다는 전략이다. 이들 차량은 북미 시장 수요 대응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도 투싼을 생산했지만 하이브리드는 국내에서 전량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이처럼 투싼 하이브리드 수출에 집중하는 것은 판매량은 물론 수익성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판매 가격보다 1000여만원 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은 내년 완공 예정을 목표로 조성 중인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메가플랜트아메리카’(HMGMA)를 올 하반기로 앞당겨 완공하고 조기 가동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는 아이오닉 5와 EV9 등을 시작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 6개 차종을 생산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비스타비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추경호 與 원내대표,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시도… 관례 무시한 의회 독재”
▲ 與 ‘당권주자’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 김건희 특검 거당 ‘맞불’ /사진 뉴시스

▲ 野 “채상병 사건尹 개입 확실… 훈련병 영결식 날 與 워크숍서 술판”
▲ 조국신당, 공수처에尹 고발… “수사 거부 시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尹, 돈보일 때 나서고 책임질 때 철저히 숨어” /사진 뉴시스
▲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 “채상병 특검, 대통령실이 결정하지 않아”